

군산시 근대 건축물 활용 정책의 성과와 과제

송석기
군산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근대 건축물에 대한 인식의 전환

군산에서 근대 건축물의 보존과 활용에 대한 관심이 구체적인 정책과 개발 계획의 형태로 정립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이후의 일이다.* 그 이전까지 군산 원도심에 산재한 근대 건축물은 화재에 대비하여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한 노후한 목조 주택으로 '방재의 관점'에서 인식되었다. 또한 1990년대 구 군산시청의 철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더 이상 존재 이유가 사라진 '적산(敵産)'의 일부로 비취질 뿐이었다. 국가 차원에서 근대 건축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시작된 것은 2001년 등록문화재제도가 도입되면서부터였다.

군산 차이나타운 개발 계획

군산 원도심의 근대 건축물에 대한 구체적인 보존 및 활용 계획은 2002년 '군산 차이나타운 개발 계획'에서 처음으로 나타났다. 이 계획에서는 원도심의 문화·관광·역사 자원의 현황을 파악하고, 노후 건축물의 유지·관리와 새로운 공간 창출을 통해 문화관광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또 도심과 수변공간과의 연계 방안을 모색하고, 격자형 가로패턴의 특성을 살린 보행자 중심 공간을 계획하였다. 역사적 건축물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특화사업을 추진하려는 과정에서 처음으로 원도심에 대한 개발 및 보존계획이 수립되기도 하였다. 첫 시작은 차이나타운 개발 계획이었으나 화교뿐만 아니라 일제강점기, 미군부대 등의 다양한 문화가 누적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계획은 점차 확대되고 수정되었다.

군산 근대역사문화경관 가꾸기 기본 계획 및 원도심 활성화 조례

2005년 ‘군산 근대역사문화경관 가꾸기 기본 계획’이 수립되었다. 이 계획은 군산 원도심에 근대역사문화경관지구를 지정하고 이를 보존 및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한 보존지향적인 계획이었다. 지구 내 근대 건축물의 보존 정비 방법과 관리지침을 마련하여 지구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목표였으며, 블록에 면한 근대 건축물을 선적 요소로 보고 가로경관의 관리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 시기에 원도심에 분포하는 근대 건축물의 현황을 파악하는 조사사업이 이루어졌다.

‘군산 근대역사문화경관 가꾸기 기본 계획’을 토대로 시 자체적으로 관련법을 마련하였는데, 2007년에는 ‘군산 원도심 활성화 조례’를 제정하였다. 원도심 활성화와 공동화 방지 및 근대역사문화의 보존 및 활용 방안 모색에 목적을 두었다. 한편으로는 일부를 특화·특정거리로 지정하여 개발 행위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근대 건축물의 보존방침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축 및 외부수선과 공익시설 및 공공시설 조성에 일정부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더불어 2008년에는 「경관법」을 바탕으로 ‘군산시 도시경관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 역사문화 분야의 경관계획에서 원도심은 근대 역사경관으로서 지구형과 선형 역사문화 경관유형으로 분류되었다. 또한 같은 해에 ‘군산시 경관조례’가 제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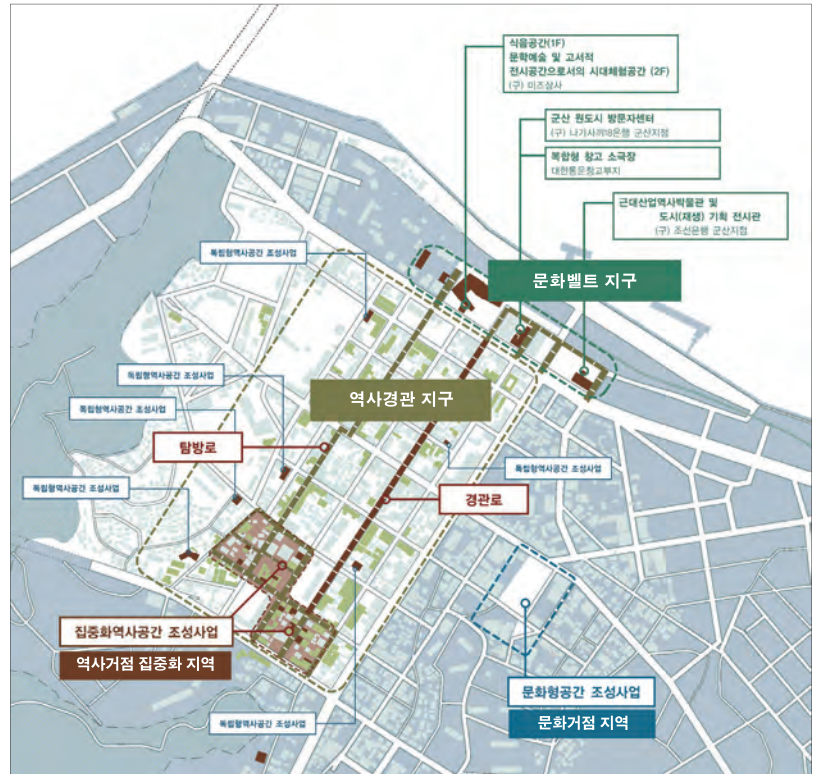
군산 근대문화도시조성사업

2009년 내항 일대와 원도심, 그리고 구 군산역 및 주변 재래시장과 관련된 계획이 각각 수립되었다. 내항 일대의 산업유산을 주제로 문화체육관광부가 벌인 문화예술창작벨트화사업에 선정되면서 내항을 중심으로 한 ‘군산 근대역사문화 벨트화사업 마스터플랜’이 작성되었다.^{***} 그리고 이어서 원도심의 근대 건축물을 활용하여 근대 역사문화의 거리를 조성하는 ‘원도심 근대 역사경관을 활용한 활성화 계획’과 ‘구 역세권 종합개발방안’이 이어졌다. 이들 사업 중 내항을 중심으로 한 근대역사문화벨트화사업(이하 벨트화 사업)과 원도심을 중심으로 한 근대역사경관조성사업(이하 역사경관

* 2000년대 초·중반에 수립된 군산 원도심 관련 개발 계획 및 관련 조례의 내용은 다음의 논문을 참조. 양은정, 「군산시 원도심 보존계획의 변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2, p.78, p.82.

** 군산시, 「군산근대역사문화벨트화사업 마스터플랜수립 연구보고서」, 2009. 참조.

사업)을 종합하여 2010년 ‘군산근대역사경관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가 추진되었다. 이 계획은 그동안 군산의 근대 역사문화 기본요소들에서도 출한 내용을 바탕으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한 디자인 원칙과 기본 방향, 벨트화사업과 역사경관사업의 연계방안 및 단계별 전략구상 등의 내용을 담아 ‘군산근대문화도시조성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되었다.



군산근대역사문화 벨트화사업 마스터플랜
자료: 군산시, 2009

근대역사 문화벨트화 사업

현재와 같은 군산항의 모습은 개항기로부터 일제강점기 동안 계속된 축항 공사의 결과였다. 1930년대 초반까지의 축항 공사를 통해 현재의 호안이 완성되었고, 철도는 해안을 따라 서쪽으로 연장되었다. 당시 군산항의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 유산이 호안의 석축과 뜬다리[浮棧橋]이다. 뜬다리와 호안, 쌀창고, 철도가 형성하는 내항 공간과 군산 원도심 사이에는 주요 공공시설과 금융시설이 자리 잡았다. 당시 금융시설

의 대표적인 유산이 ‘구 일본 제18은행 군산지점’과 ‘구 조선은행 군산지점’이다.

군산근대역사박물관에 인접하여 진행된 벨트화 사업은 구 군산세관 본관에서 시작하여 군산근대역사박물관과 구 일본 제18은행 군산지점, 구 조선은행 군산지점에 이르는 내항 일원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리고 영역 내의 근대 건축유산을 수리·복원하여 문화시설로 재활용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

구 조선은행 군산지점

구 조선은행 군산지점 건물은 일제의 식민지 지배를 위한 대표적 금융시설로서 1923년에 건립되었다. 일제강점기 동안 조선은행 군산지점으로 사용되던 이 건물은 광복 이후 조선은행이 한국은행으로 바뀌고, 한국은행이 전주로 이전된 이후 한일은행 군산지점으로 사용되다가 유흥시설로 바뀌었다. 이후 1990년대에 화재로 내부가 소실된 뒤 방치되어 왔다. 벨트화사업에서 구 조선은행 군산지점은 수리 및 복원을 통해 전시시설로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으나 구체적인 전시의 성격은 개관 직전까지 변경을 거듭하였다. 전시 내용에서 군산근대역사박물관과의 중복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2009년의 마스터플랜에서 구 조선은행 군산지점은 ‘근대(산업·과학·기술) 기초과학 및 체험 공간’으로 계획되었으나 2010년 수탈사박물관으로 변경되었고, 이후 2011년 근대수탈사박물관으로 변경되었다가 2012년 조선은행 군산지점 및 재생 관련 전시시설로 변경되었다. 최종적으로 ‘군산근대건축관’으로 문을 열게 되었다.



구 조선은행 군산지점의 사업 전후 모습



©출처가

구 일본 제18은행 군산지점

구 일본 제18은행 군산지점은 1909년에 지어진 건축물로 영업장과 금고, 사무실, 3동의 건축물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된 독특한 배치 형식을 보여주고 있다. 이 건물은 1938년 조선미곡창고주식회사(1963년 대한통운주식회사로 변경)에 매각된다. 군산시는 대한통운으로부터 이 건물을 사들인 후 수리 및 원형 복원 공사를 통해 전시시설로의 활용을 계획하였다. 구 조선은행 군산지점과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전시의 성격은 개관 직전까지 변경을 거듭하였다. 2009년의 마스터플랜에서는 ‘방문자 센터 및 갤러리형 휴게공간’으로 계획되었으나 2010년 근대금융사박물관으로 변경되었고, 이후 2011년 근대 건축 및 금융 박물관으로 변경되었다가 2012년 근대 건축 모형 및 도시사 관련 전시시설로 변경되었다. 근대 건축 모형 전시가 구 조선은행 군산지점으로 옮겨가면서 이 건물은 최종적으로 ‘군산 근대미술관’으로 문을 열게 되었다.



© 송석기

구 일본 제18은행 군산지점의 사업 전후 모습

근대역사경관 조성사업과 가로경관 정비

군산에서 현존하는 가장 많은 근대 건축유산은 원도심에 산재한 일본식 주거 및 상업 건축물이다. 또한 근대 도시 군산의 공간적 원형*을 보여주는 부분도 원도심의 격자형 가로망이라고 할 수 있다. 근대 문화도시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역사경관사업은 원도심의 격자형 가로망과 그곳에 지어진 일본식 주거 및 상업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다. 광복 이후 한국인이 생활하면서 많은 부분이 변형되었고, 개별 건축물 하나 하나의 건축적 수준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군산 근대 유산의 다수를 차지한

* 송석기, “근대기 군산의 도시 공간 형성”, 「한국건축역사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2011.

다는 점에서 역사경관사업은 군산근대문화도시조성사업의 근간을 형성하는 사업이다.

집중화 권역 조성

역사경관 사업은 원도심 전체의 변화를 선도하기 위한 시범적인 사업으로 ‘집중화 권역’으로 지정한 원도심의 2개 블록에 소공원과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계획되었다. 1개 블록이 먼저 조성되어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과 편의시설로 활용되고 있고, 다른 1개 블록에 대한 공사 역시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다.

2개의 권역에는 1930~2000년대에 지어진 다양한 건축물이 산재해 있었다. 권역 내 건축물의 원형 여부와 안전성 조사 등을 통해 완전 철거, 철거 후 재건축, 증축부 철거 후 수리 및 재활용 등으로 판정하여 사업을 진행하였다. 증축부에 대한 철거와 구조적 안전성이 낮은 건축물에 대한 철거, 블록 안쪽으로 공원 조성을 위한 건축물 철거가 진행되면서 실제로 권역 내의 근대 건축물은 많은 수가 철거되고 다시 지어졌다. 원래의 건축물이 수리되어 재활용된 것은 소수다.

집중화 권역에 대한 평가

집중화 권역의 조성 과정에서 사업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었다. 2개 블록에서 최근에 지어지거나 규모가 큰 현대 건축물을 제외한 나머지 건축물은 모두 군산시에서 매입하여 사업을 진행하였다. 사업 운영의 효율성, 가시적인 성과의 측면에서 본다면 지자체 주도에 의한 매입과 사업 시행이 불가피한 부분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주민 참여와 자율성, 자생성, 지속가능성 등의 측면에서 본다면 지자체 주도의 사업에 대한 반대 의견

도 만만치 않았다. 또한 소공원 등을 조성하면서 본래 해당 블록이 갖고 있던 필지 분할과 같은 도시조직이 지워진 점, 광복 이후 한국인의 생활 과정에서 증축되거나 변형된 부분이 제거되고 1930년대의 가로 경관을 모사한 건축물

©윤석기



집중화 권역 조성사업 이후 모습

로 조성된 점 등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집중화 권역을 포함한 근대문화 도시조성사업 이후 관광객 숫자가 증가하고, 사업이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집중화 권역 조성사업에 대한 비판이 현재까지 계속되고는 있지 않으나 비판들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의 필요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기타 관련 사업

군산에서는 현재 ‘경관로’와 ‘탐방로’라고 이름 붙은 주요 가로에 대한 정비 사업이 지속되고 있다. 벨트화사업 지역과 역사경관사업 지역을 연결하는 주요 가로로서 상업시설의 간판을 포함한 입면 정비와 도로 포장 정비 등이 진행 중에 있다. 또한 군산시 외곽의 근대 건축유산에 대해서도 보존 및 활용 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 이영춘 가옥은 ‘쌍천 이영춘 박사 전시관’으로, 구암동의 구 구암교회는 ‘군산3·1운동전시관’으로 문을 열었다. 임피역에는 테마공원이 조성되었다.

건축자산과 도시재생

군산시 원도심은 지난 4월 국내의 다른 12개 지역과 함께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선정되었다. 군산시가 도시재생 선도지역에 선정될 수 있었던 것은 지난 2009년 이후 계속되어 온 근대문화도시조성사업의 성과가 인정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군산 원도심에 산재한 근대 건축물이 여전히 활용 가능한 지역 자산, 즉 건축자산으로서의 가치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군산 도시재생 선도지역 활성화 사업

2017년까지 계속될 군산 도시재생 선도지역 활성화 사업에서는 근대문화도시조성사업의 성과를 보완하는 것이 중요한 주제 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 특히 지자체 중심의 효율성이 강조되었던 사업 방식에서 주민의 참여가 확대될 것이다. 근대 건축물의 보존 및 활용에서도 주민의 동의와 참여를 통한 사업의 진행이 필수적이다. 집중화 권역에 대한 평가에서 언급 하였던 주민 참여와 자율성, 자생성, 지속가능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주민 역량의 강화 등이 요구된다.

근대문화도시조성사업 이후 군산을 찾는 관광객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한계로 지적되는 부분이 벨트화사업 지역과 역사경관사업 지역의 연계성 부족이다.* 그러나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원도심에

현존하는 주요 근대 건축물을 보존 및 리모델링하여 숙박 및 체험, 관람 시설 등으로 조성함으로써 벨트화사업 지역과 역사경관사업 지역의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역사적 건축자산 활용을 위해 보완할 점

최근 몇 년 동안 진행된 군산에서의 근대 건축물 활용 과정을 돌이켜 보면 서 향후 지속적으로 지역의 역사적 건축자산을 보존하고 활용하는 과정에서 보완할 점 몇 가지를 정리할 수 있었다.

우선, 지역의 역사적 건축자산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자칫 과거의 중요한 흔적을 지나쳐 버리거나, 건축자산이 갖고 있는 본래의 진정성을 훼손하고 어울리지도 않는 새 것을 덧씌워 놓는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한다. 지나친 정비로 옛 것과 새 것의 구별이 어렵도록 만드는 것도 주의할 점이다. 그리고 특정 시대나 형식을 중심으로 정비가 진행되면서 그 이외의 시대나 형식으로 만들어졌던 또 다른 우리 삶의 유산이 홀대받지는 않았는지, 건축자산에 대한 잘못된 정보나 오해가 진실인 것처럼 널리 알려진 부분은 없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보존 및 활용 대상이 되는 건축자산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보다 넓은 개념으로의 확장을 통해 20세기 중·후반에 만들어진 광범위한 물리적 환경에 대한 보존과 활용으로의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

이러한 몇 가지 점의 보완을 통해 우선 눈에 보이는 경제적 가치보다는 해당 건축자산의 구체적인 가치를 세부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섬세하게 보존하는 것이 건축자산의 역사적 진정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보다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될 수 있는 활용 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방법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 유애립·박성신, “공간 디자인마케팅 관점에서 본 지방 중소도시 도시재생 프로젝트의 효과 및 개선 방향”, 『대한건축학회 연합논문집』, 2014, vol.16(4), pp.31-42.

참고문헌

- 1 군산시, 「군산근대역사문화벨트화사업 마스터플랜수립 연구보고서」, 2009.
- 2 송석기, 「근대기 군산의 도시 공간 형성」, 한국건축역사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2011.
- 3 양은정, 「군산시 원도심 보존계획의 변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2.
- 4 유애립·박성신, “공간 디자인마케팅 관점에서 본 지방 중소도시 도시재생 프로젝트의 효과 및 개선 방향”, 『대한건축학회 연합논문집』, 2014, vol.16(4), pp.31-42.